

# “코로나 소비위축... ‘임대로 인하’로 어려움 극복”

### 이용섭 광주시장, 양동복개시장 방문 ‘등참’ 호소 상인 목소리 경청... “소상공인 다각적 지원책 강구”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오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이상만씨(78)를 만나 어려운 형편에도 큰 용기를 내준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격려했다.

이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 3월부터 임대료를 대폭 낮춰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양동시장과 양동건어물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8개 시장, 11억 원) ▲주차환경개선사업(3개 시장, 34억 원) ▲특성화 사업(8개시장, 31억 원) 등 각종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더욱 커지고 있어 임대료 인하가 절실하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 동참을 적극 호소했다.

한편, 이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특례보증·공공시설 임대료 인하·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친환경 3-door 저상버스 광주시가 '친환경 3-door 저상버스' 6대를 시범 운행한 1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2개의 출구에서 동시에 하차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 AI 유치기업 인재채용 활성화 광주시, 교육기관과 화상회의

광주시는 1일 인공지능 유치기업들의 맞춤형 인재채용을 위해 대학·직업학교 등 지역 교육기관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광주에 동지를 둔 인공지능 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조선대·SW마이스터고등학교·인공지능사관학교 등 지역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17개 기관 일자리담당자가 참여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신속한 인재채용을 위한 채용정보 실시간 소통체계 마련 ▲기업-구직자간 윈윈 서비스 지원방안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활용방안 등이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유치기업이 채용정보를 제공하면 우선적으로 각 대학 및 기관 내 자체 연락망을 활용한 홍보와 사전조사를 실시해 구직자를 파악한 후, 기업과의 맞춤형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윈윈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황애란 기자

## 전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나선다

### 타당성 용역 착수...국비 확보 여부가 관건

전남도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품질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다.

12월 설립 목표인 전남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수탁 운영과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각종 재가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한다.

또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및 견인을 위해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해 배포하며 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지문, 시설 대체 인력 및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서비스원을 신규로 설립할 것인지, 복지재단 등 기존 조직을 전환할 것인가가 연구의 핵심이다.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에서 선정되면 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국비가 확보된다.

전남도는 시·군 순회설명회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설명자료 영상상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사회서비스원 위탁가능 시설을 조사하고 10월에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1일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품질향상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겠다”면서 “10월 복지부 공모 선정을 위해 용역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내수소비 증가’ 뚜렷

### 도, 87만7천가구 5,376억...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전남도가 지난달까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소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팬데믹 현상과 도내 전염병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도민 8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5,376억원을 지급했다.

지급형태로는 현금 19만6,927가구 907억원을 비롯, 신용·체크카드 40만 5,401가구 2,718억원, 선불카드 5만 1,459가구 331억원, 상품권 20만1,377가구 1,307억원 등이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했다. /길용현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호남경제동향을 보면 전남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 등이 줄어 다소 감소했으나, 소매판매액지수는 110.6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0.2% 증가했다. 또 승용차와 연료소매점,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의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찬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소상공인과 지역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며 “코로나19로 내수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만큼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김 지사 “공직자의 부단한 도전정신 필요”

### ‘포스트 코로나’ 걸맞은 프로젝트 개발 절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에 걸맞은 프로젝트 개발이 절실하다”며 공직자들의 부단한 도전정신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가진 9월중 정례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이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도전정신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블루노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프로젝트 발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청



정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렴도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세대간 건전한 직장문화도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대간 갈등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단한 경청을 통해 소통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청사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20% 정도 재택근무나 연가, 유연근무 등 나름의 비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남도 국비가 7조1,782억원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4,521억원이 늘었다”며 “앞으로 많은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실국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길용현 기자

#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에너지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합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 BIM모델링

###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www.dasco.kr](http://www.dasco.kr)

본 사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로길 26-2 TEL. 061)370-2144

서울지사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지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영남지사 | 부산시 동구 초량동로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당진1공장(데크플레이트) |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면 연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단 열 재) |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면 함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새만금공장(W B M)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불역 2로

다스코 가족회사

- 다스코 | 솔에코(수상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 엘도우(커튼월) | 학교법인흥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 흥인(부동산 임대업)

##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시동

### 목표·진도서 ‘2020특별기획전’ ...오는 24일부터

전남도는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개최 기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피로감 해소를 위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0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2020 특별기획전’ 주제는 ‘부릉부릉 수목시동’으로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

날레’에 시동을 건다는 의미다.

특별전은 오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와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유명작가와 지역청년 예술인 40여명이 참여, 80여점의 다양한 장르 작품이 도시재생과 접목돼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전시관은 목포 근대역사가 깃든 세종소주방과 동아약국, 박석규미술관, 빈집전, 목포역사살리미센터 공간에서 현대적 감각의 수목디자인, 수목 현대미술, 수목영상, 수목 미디어아트 등 수목의 전통적인 표현기법에서 벗어나 재창조된 신 한류 수목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 목포근대역사문화거리, 진도 운림산방 야외에서 3평 미술관, 깃발미술제, 수목벽화, 수목트리아트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워킹스루형 전시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 광주시, 200억 투입 ‘도시 바람길숲’ 조성

### 미세먼지 저감·도시열섬 완화 등 효과 기대

광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200억(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을 투입해 ‘도시 바람길숲’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바람길숲은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어 공기순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배출

하기 위해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시 내 산재된 숲을 선형으로 연결한 숲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갔다.

시는 도시외곽 산지, 도시 내 공원, 녹지대 등 도시공간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찬공기가 생활권 주거지역까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공기순환을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에 기여하는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람길 분석과 대상지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2022년까지 바람생성소, 바람연결소, 디딤·확산소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이 조성된다. /황애란 기자